

4

언어 영역

(가) 아무도 찾지 않으려네

㉠ 내 살던 집 뒷마루에 앉으면
벽에는 아직도 쥐오줌 얼룩져 있으며
담 너머로 늙은 수유나뭇잎 날리거든
두레박으로 우물물 한 모금 떠 마시고
가윗소리 요란한 옛장수 되어
고추잡자리 새빨간 노을길 서성이려네
감석 깔린 장길은 피하려네
내 좋아하던 고무신집 딸아이가
수틀 끼고 앉았던 가갯방도 피하려네
두엄더미 수북한 쇠전마당을
금줄기 찾는 허망한 금전꾼 되어
초저녁 하얀 달 보며 거닐려네
장국밥으로 깊은 허기 채우고
읍내로 가는 버스에 오르려네
쫓기듯 도망치듯 살아온 이에게만
삶은 때로 애답기도 하리
㉡ 긴 능선 검은 하늘에 박힌 별 보며
길 잘못 든 나그네 되어 떠나려네

- 신경림, 「고향길」 -

(나) 눈을 가만 감으면 굽이 잦은 풀밭 길이
개울물 돌돌돌 길섶으로 흘러가고
백양 숲 사립을 가린 초집들도 보이구요
㉢ 송아지 몰고 오며 바라보던 진달래도
저녁 노을처럼 산을 둘러 퍼질 것을
어마씨 그리운 솜씨에 향그러운 꽃지짐
어질고 고운 그들 뱃새도 캐어 오리
집집 끼니마다 봄을 씹고 사는 마을
감았던 그 눈을 뜨면 마음 도로 애젓하오

- 김상옥, 「사향(思鄕)」 -

(다) 진주 장터 생어물전에는 _____ [A]
바다 밑이 깔리는 해 다 진 어스름을, _____
울엄매의 장사 끝에 남은 고기 몇 마리의 _____
㉣ 빛 발(發)하는 눈깔들이 속절없이 _____ [B]
은전(銀錢)만큼 손 안 닿는 한(恨)이던가. _____
울엄매야 울엄매,
별발은 또 그리 멀리 _____
우리 오누이의 머리 맞댄 골방 안 되어 _____ [C]
손시리게 떨던가 손시리게 떨던가. _____
진주 남강 맑다 해도 _____
오명 가명 _____ [D]
신새벽이나 밤빛에 보는 것을, _____
울엄매의 마음은 어떠했을꼬,
달빛 받은 옹기전의 옹기들같이 _____ [E]
말없이 글썽이고 반짝이던 것인가. _____

- 박재삼, 「추억에서」 -

15.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에는 고향에 정착할 수 없는 화자의 심정이 담겨 있다.
- ② (나)는 아름다운 추억이 간직되어 있는 고향을 그리고 있다.
- ③ (다)는 지명을 통해 고향에 대한 정감을 환기하고 있다.
- ④ (나)와는 달리 (가)는 화자가 직접 고향을 찾아가는 상황을 설정하고 있다.
- ⑤ (가)에 비해 (다)는 고향을 이상적이고 낭만적인 공간으로 묘사하고 있다.

16. ㉠~㉣에 내포된 화자의 정서가 가장 가까운 것끼리 묶은 것은? [1점]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17. (나)의 시상의 흐름에 맞추어 (다)를 개작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 ①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화가 두드러지도록 연을 재배열한다.
- ② 회상 형식이 드러나도록 처음과 끝에 화자의 현재 상황을 부여한다.
- ③ 제재가 병렬적으로 구성되도록 특정한 시어들을 반복적으로 사용한다.
- ④ 점층적인 구성이 되도록 화자의 시선을 먼 곳에서 가까운 곳으로 이동시킨다.
- ⑤ 각 연마다 선경 후정(先景後情)의 방식이 드러나도록 전체 구조를 변화시킨다.

18. <보기>의 관점에서 (나)를 감상할 때, 가장 적절한 반응은?

<보 기>

시조는 전통적으로 음악과 관련된 형식을 강조한다. 노래로 불려지지 않는 현대 시조에서도 이러한 형식은 여전히 중요시되어 음수 통제나 율격 구조와 같은 형식적인 제약이 강조되고 있다. 그 결과 시적 감수성을 구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제 현대 시조는 이러한 형식적 제약을 넘어서 새로운 미학을 개척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 ① 의미를 압축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글자 수를 제한하고 있군.
- ② 이미지의 흐름에 따라 짜임새 있는 의미 구조를 이루고 있군.
- ③ 어절을 규칙적으로 배열하여 율격적인 특징을 나타내고 있군.
- ④ 사투리를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시의 리듬감을 잘 살리고 있군.
- ⑤ 정서의 흐름을 통제하기 위하여 안정적인 3장 구조를 지키고 있군.

19. <보기>는 (다)의 시인이 쓴 다른 작품의 일부이다. [A]~[E]

에서 <보기>의 상황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은? [1점]

<보 기>

새벽 서릿길을 밟으며
 어머니는 장사를 나가셨다가
 축축한 밤이슬에 젖으며
 우리들 머리맡으로 돌아오셨다.

- 박재삼, 『어떤 귀로』 -

- ① [A] ② [B] ③ [C] ④ [D] ⑤ [E]

[20~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쇼윈도는 소비 사회의 대표적인 문화적 표상 중의 하나이다. 책을 읽기 전에 표지나 목차를 먼저 읽듯이 우리는 쇼윈도를 통해 소비 사회의 공간 텍스트에 입문할 수 있다. ‘텍스트’는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소통할 목적으로 생산한 모든 인공물을 이르는 용어이다. 쇼윈도는 ‘소비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공간 텍스트이다. 기호학 이론에 따르면 ‘소비 행위’는 이런 ㉠ 공간 텍스트를 매개로 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가 의사소통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옷 가게의 쇼윈도에는 마네킹이 멋진 목걸이를 한 채 붉은색 스커트를 날씬한 허리에 감고 있다. 환한 조명 때문에 마네킹은 더욱 선명해 보인다. 길을 걸다가 환한 불빛에 이끌려 마네킹을 하나씩 살펴본다. 마네킹의 예쁜 모습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 이야기를 시작한다. ‘참 날씬하고 예쁘기도 하네. 저 비짜 보이는 목걸이는 어디서 났을까. 짧은 스커트가 눈부시네……. 나도 저 마네킹처럼 되고 싶다.’라는 생각에 곧 옷 가게로 들어간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은 소비자가 쇼윈도라는 공간 텍스트를 읽는 행위로 이해할 수 있다. 공간 텍스트는 세 개의 층위(표층, 심층, 서사)로 존재한다. 표층 층위는 쇼윈도의 장식, 조명, 마네킹의 모습 등과 같은 감각적인 층위이다. 심층 층위는 쇼윈도의 가치와 의미가 내재되어 있는 층위이다. 서사 층위는 표층 층위와 심층 층위를 연결하는 층위로서 ㉢ 이야기 형태로 존재한다.

서사 층위에서 생산자와 소비자는 상호 작용을 한다. 생산자는 텍스트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고 이를 이야기 형태로 소비자에게 전달한다. 소비자는 이야기를 통해 텍스트의 의미와 가치를 해독한다. 이런 소비의 의사소통 과정은 소비자의 ‘서사 행로’로 설명될 수 있다. 이 서사 행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과정을 거쳐 진행된다.

첫 번째는 소비자가 제품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과정이다. 이때 소비자는 쇼윈도 앞에 멈추어 공간 텍스트를 읽을 준비를 한다. 두 번째는 소비자가 상품을 꼼꼼히 관찰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는 쇼윈도와 쇼윈도의 구성물들을 감상한다. 세 번째는 소비자가 상품에 부여된 가치를 해독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는 쇼윈도 텍스트에 내재된

가치들을 읽어 내게 된다. 네 번째는 소비자가 상품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를 내리는 과정이다.

이 네 과정을 거치면서 소비자는 구매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서사 행로는 소비자의 측면에서 보면 이 상품이 꼭 필요한지, 자기가 그 상품을 살 능력을 갖고 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20.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1점]

- ① 쇼윈도는 소비자를 소비 공간으로 유인한다.
- ② 소비자는 서사 행로를 통해 구매 여부를 결정한다.
- ③ 책을 읽는 능력은 공간 텍스트 해독에 도움을 준다.
- ④ 마네킹을 통해서 소비자는 생산자와 의사소통을 한다.
- ⑤ 공간 텍스트에는 생산자가 부여한 의미가 담기게 된다.

21. 위 글에 쓰인 설명 방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 ① 대상을 단계별로 나누어 설명한다.
- ② 핵심적인 용어의 개념을 정의한다.
- ③ 현상들 사이의 인과 관계를 밝힌다.
- ④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이해를 돕는다.
- ⑤ 특정한 이론에 따라 현상을 분석한다.

22. 위 글의 내용으로 보아 ㉠에 대한 진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메시지를 담고 있다.
- ② 판매를 촉진할 수 있다.
- ③ 소비자와 생산자를 연결한다.
- ④ 특정한 장소를 점유하고 있다.
- ⑤ 공연 예술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23. ㉡, ㉢의 뜻풀이를 <보기>에서 찾으시오. [1점]

<보 기>

이야기 ㉡ ㉠ 어떤 사물이나 사실, 현상에 대하여 일정한 줄거리를 가지고 하는 말이나 글. ㉢ 자신이 경험한 지난 일이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표현하는 말. ㉣ 어떤 사실에 관하여, 또는 있지 않은 일을 사실처럼 꾸며 재미있게 하는 말. ㉤ 소문이나 평판.

- | | | |
|---|---|---|
| | ㉡ | ㉢ |
| ① | ㉠ | ㉣ |
| ② | ㉢ | ㉠ |
| ③ | ㉣ | ㉤ |
| ④ | ㉤ | ㉠ |
| ⑤ | ㉤ | ㉢ |

[24~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07. 6월 15~19번

(가) - 신경림, 「고향길」 -

제목이 고향길이네요 ㅎㅎ

그럼 고향을 찾아간다거나 회상하는 내용이 나오겠네요 ㅎㅎ

**아무도 찾지 않으려네
내 살던 집 뒷마루에 앉으면
벽에는 아직도 쥐오줌 얼룩져 있으리**

고향애기 시작하자마자 아무도 찾지 않겠대요
고향사람들을 보기 싫은 이유가 있는 걸까요?
시골이라 그런지 벽에 쥐오줌이 묻어있습니다 TTT 드러라 ㅋㅋ

않으려네 - 독백

얼룩 - 시각

**담 너머로 늙은 수유나뭇잎 날리거든
두레박으로 우물물 한 모금 떠 마시고
가윗소리 요란한 옛장수 되어
고추잠자리 새빨간 노을길 서성이려네**

담너머에 나뭇잎도 날리고
우물물도 퍼먹고
옛장수도 있고
잠자리도 있고
풍경이 그려지시나요?
시골의 정겨운 모습들이 눈앞에 보이는 듯 합니다 'ㅇ'

나뭇잎 날리거든 - 시각

가윗소리 - 청각

새빨간 - 색채

**감석 깔린 장길은 피하려네
내 좋아하던 고무신집 딸아가
수들 끼고 앉았던 가갯방도 피하려네**

방금 전에는 뭘 하겠다는 내용이 나왔는데
이번엔 피하려는 것들이 나오네요
장길, 내가 좋아하던 아이가 있던 가갯방..
왜 피하려는 걸까요
아까 맨 처음에 아무도 찾지 않으려겠다는 다짐과 관련이 있는 거겠죠?

**두엄더미 수북한 쇠전마당을
금줄기 찾는 허망한 금전꾼 되어
초저녁 하얀 달 보며 거닐려네
장국밥으로 깊은 허기 채우고
읍내로 가는 버스에 오르려네
쫓기듯 도망치듯 살아온 이에게만
삶은 때로 애닦기도 하리
긴 능선 검은 하늘에 박힌 별 보며
길 잘못 든 나그네 되어 떠나려네**

금전꾼되어 거닐고, 버스를 타고, 길 잘못 든 나그네 되어 떠난답니다.
고향에 머무를 수 없는 처지인가보네요
쫓기듯 도망치듯 살아온 이는 자신을 표현하는 말이겠죠
도망치듯 살아야만 하는 화자는
고향에서도 머무를 수 없이 다시 길을 떠납니다..
어차피 떠나야 될 것이기에
고향사람들도 안보고 소리도 흔적도 없이
다시 길 잘못 나그네처럼 떠나는 거겠죠 ㅠ ㅠ
허망한, 깊은 허기 같은 단어를 통해서
서글픈 생을 사는 화자의 아픔이 더 잘 드러나는 것 같네요

하얀 달, 검은 하늘 - 색채
별 - 시각
~네 -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어미를 '반복' 사용했네요

(나) - 김상옥, 「사향(思鄕)」 -

제목은 생각사에 고향향 인데요
고향을 생각한다는 뜻이 되겠네요
(가)시처럼 이번에도 고향에 관련된 애기가 보네요

눈을 가만 감으면 굽이 잦은 풀밭 길이
개울물 돌돌돌 길섶으로 흘러가고
백양 숲 사립을 가린 초집들도 보이구요

눈을 감는다고 했으니 회상을 하는 거네요
개울물이 흐르고 초가집도 있고
이런 곳에 살았군요

돌돌돌 - 음성상징어
보이구요 - 대화체

**송아지 몰고 오며 바라보던 진달래도
저녁 노을처럼 산을 둘러 퍼질 것을
어마씨 그리운 솜씨에 향그러운 꽃지짐**

송아지도 키웠었나 봅니다
산에 가득한 진달래 보면서 향기로운 꽃지짐냄새까지!!
요즘 봄이라 그런지 느낌이 더 잘 전달되네요 ㅎㅎ

진달래 - 시각, 계절감
노을 - 시각
그리운 - 정서 직접
향그러운 - 후각

**어질고 고운 그들 멧남새도 캐어 오리
집집 끼니마다 봄을 씹고 사는 마을
감았던 그 눈을 뜨면 마음 도로 애젓하오**

멧남새가 뭘진 모르겠지만 캐어 온다는 걸 보니 나물인가보네요 ㅋㅋ
집집끼니마다 봄을 씹는다 크~ 표현죽이네요 ㅋㅋ
봄나물을 따서 먹는 걸 봄을 씹는다고 표현했습니다
시인은 역시 아무나 하는 게 아니네요 ㅋㅋ
아 이제 눈을 뜨고 회상이 끝났습니다 ㅋㅋ
눈을 뜨고 나니 그때의 감정들이 떠올라서 다시 애젓한 기분이 드네요 ㅎㅎ

봄을 씹고 - 형상화
애젓하오 - 정서 직접, 대화체

(다) - 박재삼, 「추억에서」 -

제목을 보니 이것도 뭔가 예전기억을 회상하는 듯 ㅋㅋ
가,나,다 죄다 추억시리즈네요 ㅋㅋ
이런 추억시리즈는 내용은 딱히 별게 없으니
문제가 쉽고 표현법 위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ㅋㅋ

진주 장터 생어물전에는
바다 밑이 깔리는 해 다 진 어스름을,

울엄매의 장사 끝에 남은 고기 몇 마리의
㉠빛 발(發)하는 눈깔들이 속절없이
은전(銀錢)만큼 손 안 닿는 한(恨)이던가.
울엄매야 울엄매,

엄마가 진주 장터에서 생선장사를 하셨나보네요
장사를 끝냈는데 고기가 남아있으면
그게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고기가 팔려야 돈(은전)이 생기는데
잘 안 팔리니 돈은 손에 잘 안 닿죠
고기가 안팔려서 돈은 못 벌고
그 남은 고기들을 보면서 돈처럼 닿지 않는 한이라고 표현을 한 게
참 찜찜합니다 ㅋㅋ
울엄매야 울엄매 라는 부분에서 안타까움이 느껴지네요 ㅠㅠ

빛 발하는 눈깔들, 은전 - 시각(색깔 맞추려고 일부러 돈을 은전이라고 표현한 듯)
한 - 정서직접
울엄매야 울엄매 - 반복

별발은 또 그리 멀리
우리 오누이의 머리 맞댄 골방 안 되어
손시리게 떨던가 손시리게 떨던가.

일반적으로 희망의 의미를 담고 있는 별은
은전처럼 '또' 멀리 있습니다
(여기선 그대로 읽기를 통해 별의 의미를 알 수 없으므로
글의 전체 맥락으로 파악하여 희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난하고 춥고 힘든 상황 = 멀리 있는 별'
그렇다면 별은 경제적으로 넉넉한 상황, 희망 등이 되겠죠)
은전도 손 안 닿고 별도 멀리 있는 거죠
오누이는 골방에서 추위에 떨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춥고 희망도 안 보이는 상황이네요 ㅠㅠ

별 - 색채
손시리게 떨던가 - 반복, 촉각

진주 남강 맑다 해도

오명 가명

신새벽이나 밤빛에 보는 것을,
울엄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진주 남강은 맑다고 소문 나 있지만
어두울 때 보면 그게 맑은지 뚱물인지 알게 됩니까
어차피 안 보이는데요..
항상 새벽에 일 나가서 한밤중에 돌아오는 엄마의 마음이
어땠는지 생각하면서 안타까워하고 있네요

오명 가명 - 사투리

어떠했을까 - 의문

달빛 받은 옹기전의 옹기들같이
말없이 글썽이고 반짝이던 것인가.

엄마의 마음은 말없이 글썽이고 반짝였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힘들다고 말은 안하시고 혼자서 눈물로 삭히는
전형적인 우리네들의 희생하는 어머니의 모습이네요.. 엄마 ㅠㅠ
부모님께 잘합시다..!! ㅋㅋ

달빛 - 색채

반짝이던 것인가 - 시각, 의문

◎15번.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에는 고향에 정착할 수 없는 화자의 심정이 담겨 있다.
- 이걸 문제라고.. ㅋㅋ 당연히 맞습.
- ② (나)는 아름다운 추억이 간직되어 있는 고향을 그리고 있다.
- 아름다운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라고 하면 당신은 화성인 ㅋㅋ
지구인의 시선으로 볼 때 개울물 흐르고 진달래가 잔뜩 피져있고
나물 캐서 먹고 생각하면 마음이 애절한 추억 = 아름답다 ㅋㅋ 오키
- ③ (다)는 지명을 통해 고향에 대한 정감을 환기하고 있다.
-진주 나왔죠. 오키. 고향에 대한 정감을 환기한다는 판단할 필요없구요
- ④ (나)와는 달리 (가)는 화자가 직접 고향을 찾아가는 상황을 설정하고 있다.
- (나)는 회상하고 있고 (가)는 찾아가고 있으니 맞죠잉
- ⑤ (가)에 비해 (다)는 고향을 이상적이고 낭만적인 공간으로 묘사하고 있다.
- (가)랑 비교할 것도 없이 (다)에서는 이상적이고 낭만적인 건 하나도 없고
힘들고 슬픈 것만 있습니다 ㅠㅠ 따라서 땡

답 5번.

㉔16번. ㉑~㉔에 내포된 화자의 정서가 가장 가까운 것끼리 묶은 것은? [1점]

① ㉑, ㉒ ② ㉑, ㉔ ③ ㉑, ㉒ ④ ㉒, ㉔ ⑤ ㉔, ㉒

- ㉑ 그리운 고향
- ㉒ 그냥 보는 거 ㅋㅋ
- ㉔ 그리운 고향
- ㉓ 물꼬기 눈갈 ㅋㅋ

답 2번. 장난하나 ㅋㅋ

㉔17번. (나)의 시상의 흐름에 맞추어 (다)를 개작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이건 (다)를 묻는 것 같기도 하지만
(나)가 어떤 시니? 라고 물어보는 것 ㅋㅋ
(나)에 대한 걸 고르면 되고 만약 해당되는 게 여러개 있을 땐
(다)에서 이미 하고 있는 걸 제외하면 됨.

- ①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화가 두드러지도록 연을 재배열한다.
- 시간 없어요 ㅋㅋ
- ②회상 형식이 드러나도록 처음과 끝에 화자의 현재 상황을 부여한다.
-눈을 감으면, 눈을 뜨면 ㅇㅋ
- ③제재가 병렬적으로 구성되도록 특정한 시어들을 반복적으로 사용한다.
-반복 없구요
- ④점층적인 구성이 되도록 화자의 시선을 먼 곳에서 가까운 곳으로 이동시킨다.
-시선의 이동을 보면 풀밭, 개울물, 초집, 진달래... 거리와 전혀 상관없네요 ㅋ
- ⑤각 연마다 선경 후정(先景後情)의 방식이 드러나도록 전체 구조를 변화시킨다.
-1연만 봐도 경치만 있지 정서는 없네요 ㅋㅋ

답 2번.

㉔18번. <보기>의 관점에서 (나)를 감상할 때, 가장 적절한 반응은?

<보기>의 관점만 딱 파악하면 답이 나오죠잉.

<보 기>

시조는 전통적으로 음악과 관련된 형식을 강조한다. 노래로 불려지지 않는 현대 시조에서도 이러한 형식은 여전히 중요시되어 음수 통제나 율격 구조와 같은 형식적인 제약이 강조되고 있다. 그 결과 시적 감수성을 구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제 현대 시조는 이러한 형식적 제약을 넘어서 새로운 미학을 개척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밑줄 친 곳이 핵심이네요. 요약하면 형식 꺼졌. 형식 아닌게 답 ㅋ

- ① 의미를 압축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글자 수를 제한하고 있군.
- 글자수 제한은 형식
 - ②이미지의 흐름에 따라 짜임새 있는 의미 구조를 이루고 있군.
- 의미구조?? 형식과 상관 없네 오키 너로 정했다!
 - ③어절을 규칙적으로 배열하여 율격적인 특징을 나타내고 있군.
-율격? 짜저 ㅋㅋ
 - ④사투리를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시의 리듬감을 잘 살리고 있군.
-리듬 배○
 - ⑤정서의 흐름을 통제하기 위하여 안정적인 3장 구조를 지키고 있군.
-3장구조 사요나라~
- 선지 2번 빼고는 모두 형식에 관한 거네요 ㅎㅎ

답 2번.

㉔19번. <보기>는 (다)의 시인이 쓴 다른 작품의 일부이다. [A]~[E]에서 <보기>의 상황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은? [1점]

<보 기>

새벽 서릿길을 밟으며
어머니는 장사를 나가셨다가
촉촉한 밤이슬에 젖으며
우리들 머리맡으로 돌아오셨다.
- 박재삼, 『어떤 귀로』 -

엄마가 장사를 나가셨다가 늦게 돌아오시는 거. 뭐예요? D

답 4번. 문제수준들이 너무 저급합니다 ㅠㅠ

8

언어 영역

[28~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향단(香丹)아 ㉠ 그넷줄을 밀어라
 머언 바다로
 배를 내어 밀듯이,
 향단아

이 다소곳이 흔들리는 수양버들나무와
 베갯모에 놓이듯한 ㉡ 풀꽃더미로부터,
 자잘한 나비 새끼 꼬꼬리들로부터
 아주 내어 밀듯이, 향단아

㉢ 산호(珊瑚)도 섬도 없는 저 ㉣ 하늘로
 나를 밀어 올려 다오
 채색(彩色)한 ㉤ 구름같이 나를 밀어 올려 다오
 이 울렁이는 가슴을 밀어 올려 다오!

서(西)으로 가는 달 같이는 _____ [A]
 나는 아무래도 갈 수가 없다. _____

바람이 파도를 밀어 올리듯이
 그렇게 나를 밀어 올려 다오
 향단아.

- 서정주, 「추천사」 -

(나) 저 청청한 하늘
 저 흰 구름 저 눈부신 산맥
 왜 날 울리나
 ㉦ 날으는 새
 묶인 이 가슴

밤새워 물어뜯어도
 닿지 않는 밀바다 마지막 살의 그리움이여
 피만이 흐르네
 더운 여름날의 썩은 피

땅을 기는 육신이 너를 우러러
 낮이면 낮 그여 한번은
 울 줄 아는 이 서러운 눈도 아예
 시뻘건 몸뚱어리 몸부림 함께 [B]
 함께 답새라
 아 끝없이 새하얀 사슬 소리여 새여
 죽어 너 되는 날의 길고 아득함이여

㉧ 낮이 밝을수록 칙칙해가는
 녀 속의 저 짧은
 여위어가는 저 짧은 별발을 스쳐
 떠나가는 새

청청한 하늘 끝
 푸르른 저 산맥 너머 떠나가는 새
 왜 날 울리나
 덧없는 가없는 저 눈부신 구름
 아아 묶인 이 가슴

- 김지하, 「새」 -

(다) 산수간(山水間) 바위 아래 띠집을 짓노라 하니
 그 모른 남들은 웃는다 한다마는
 ㉨ 어리고 햐암*의 뜻에는 내 분(分)인가 하노라

보리밥 푼나물을 알맞게 먹은 후에
바위 끝 물가에 슬카지 노니노라
 그 남은 여남은 일이야 부럴* 줄이 있으라

잔 들고 혼자 앉아 먼 피를 바라보니
 그리던 님이 오다 반가움이 이러하라
 말씀도 웃음도 아녀도 못내 좋아 하노라

누고서 삼공(三公)*도곤 낫다 하더니 ㉩ 만승(萬乘)*이
 이만하라

이제로 헤어든 소부 허유(巢父許由)*가 약뚫더라*
 아마도 임천 한흥(林泉閑興)을 비길 곳이 없어라

내 성이 게으르더니 하늘이 알으실사
 인간 만사(人間萬事)를 한 일도 아니 맡겨
 다만당 **다툼 이 없는 강산(江山)**을 지키라 하시도다

강산이 좋다 한들 ㉪ 내 분(分)으로 누었느냐
 임금 은혜를 이제 더욱 아노이다
 아무리 갖고자 하여도 하올 일이 없어라

- 윤선도, 「만흥(漫興)」 -

- * 햐암: 시골에 사는 건문이 좁고 어리석은 사람.
- * 부럴: 부러워할.
- * 삼공: 삼 정승.
- * 만승: 천자(天子).
- * 소부 허유: 요임금 때 세상을 등지고 살던 인물.
- * 약뚫더라: 약았더라.

28.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첫 연과 끝 연을 대응시켜 화자의 정서를 심화하고 있다.
- ② (가)와 (다)는 시간의 경과를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③ (나)와 (다)는 객관적인 시각에서 대상을 묘사하고 있다.
- ④ (가), (나), (다)는 자연과 인간을 대립시켜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 ⑤ (가), (나), (다)는 단정적 어조로 화자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29. [B]를 <보기>와 같이 해석할 때, [B]의 화자가 [A]의 화자에게 할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화자는 극한의 고통에서 벗어나 새처럼 자유롭게 되기를 희망하지만, 그것이 쉽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 역시 잘 알고 있다. 그러나 화자는 삶이 존엄하고, 생명이 남아 있는 한 고통에 맞서야 한다고 본다.

- ① 꿈을 잃었다고 죽음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 ② 꿈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떨쳐 버리십시오.
- ③ 당신도 더 나은 세상에 대한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 ④ 아무리 어렵더라도 당신이 좇는 꿈을 끝까지 추구하십시오.
- ⑤ 당신이 꿈을 이루더라도 삶은 현재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30. <보기>를 참고할 때, ㉠~㉣ 중에서 (다)의 ‘띠집’과 가장 유사한 기능을 하는 것은? [1점]

<보 기>

윤선도는 ‘띠집’을 짓고 나서 문집에 다음과 같이 적었다. “이 집이 나로 하여금 표연히 세상을 버리고 홀로 신선이 되어 날아가는 뜻을 지니게 하면서도, 끝내는 나로 하여금 부자(父子)와 군신(君臣)의 윤리를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31. ㉠~㉤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 ① ㉠은 어법에 어긋나지만 리듬감을 살리는 효과가 있다.
- ② ㉡은 역설적 표현으로 복잡한 심경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은 반어적 표현을 통해 자조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④ ㉣은 과장된 표현을 통해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은 설의적 표현으로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32. (가)의 시적 상황을 <보기>의 ‘꿈’이라고 가정할 때, (가)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한 것은? [1점]

<보 기>

도련님이 눈물을 흘리며 훗날 기약을 당부하고 말을 채찍질하여 가는 모양은 광풍에 흩날리는 조각구름일레라. 이때, 춘향이 하는 수 없어 자던 침방으로 들어가서,
“향단야! 주렴 걷고 안석 밑에 베개 놓고 문 닫아라! 도련님을 생시는 만나 보기 망연하니 잠이나 들면 꿈에 만나 보지.”

- ① 실패한 사랑의 상처를 노래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② 미천한 신분에 대한 한탄을 노래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③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동경을 노래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④ 절대자에게 귀의하려는 의지를 노래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⑤ 재회를 소망하는 간절한 심정을 노래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33. (나)를 영상화한다고 할 때, 각 연을 영상으로 옮기기 위한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1연: 화자와 ‘새’의 거리감을 표현하기 위해 ‘하늘’, ‘구름’, ‘산’이 있는 원경(遠景)을 포착한다.
- ② 2연: 화자의 암울한 처지를 강조하기 위해 1연에 비해 화면을 어둡게 한다.
- ③ 3연: 화자가 처한 상황을 강조하기 위해 화자를 클로즈업 하면서 효과음을 삽입한다.
- ④ 4연: 화자가 자신의 상황을 긍정하는 심리를 드러내기 위해 화면을 점차 밝게 한다.
- ⑤ 5연: 자유를 향한 화자의 염원을 강조하기 위해 ‘새’와 ‘구름’의 움직임에 포착한다.

34. <보기>는 (다)의 창작 배경인 금쇄동을 답사하고 쓴 글이다. <보기>와 관련지어 (다)를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금쇄동 일대는 해남 윤씨 고택(古宅)에서 멀리 떨어진 산속에 있어 아무도 그 위치를 모르다가 최근에서야 흔적이 발견된 곳이다. 윤선도가 여기 은거하기 시작한 때는 반대파의 탄핵을 받아 유배되었다가 돌아온 직후였다. 그는 가문의 일마저 아들에게 맡기고 산속에서 십여 년간 혼자 지냈다. 살 집은 물론 정자와 정원까지 조성해 놓고 날마다 거닐며 놀았다고 한다.

- ① ‘산수간’은 관념적인 표현으로만 생각했는데, 실제 공간일 수도 있겠군.
- ② ‘바위 끝 물가’는 정원의 바위와 연못을 가리킬 수도 있겠군.
- ③ ‘그 남은 여남은 일’은 금쇄동에서 산수를 즐기는 일을 가리킬 수 있겠군.
- ④ ‘뉘 뵈’는 윤선도가 유배 체험에서 입은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었겠군.
- ⑤ ‘다툼 이 없는 강산’은 정쟁이 벌어지는 현실과 대비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군.

[35~3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사진술은 다양한 물질의 감광성에 대한 길고도 지루한 실험의 토대 위에서 출현하였다. 상(像)을 정착시키는 기술의 선구자인 니에프스와외의 공동 연구 이후 다게르는 1837년에 동판 위에 감광성 물질인 요오드화은을 점착시키고 암상자 속에서 빛에 노출시킨 다음, 수은 증기를 쬐어 세부 묘사가 대단히 정밀한 상을 얻어 내었다. 한편 영국인 톨벗은 1835년에 최초의 ‘감광 소묘’에 성공했는데 이것은 염화은으로 감광성을 띠게 한 종이 위에 물건이나 식물을 놓고 산출한 음화(陰畵)였다. 그 직후 그는 작은 암상자를 이용하여 사물의 영상을 종이에 정착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거친 종이 면에

07. 9월 28~34번

(가) - 서정주, 「추천사」 -

제가 좋아하는 시네요 ㅋㅋ
추천은 그네라는 뜻입니다.
사는 말씀사구요.
그니까 그네타면서 하는 말이라는 뜻 ㅋ
이 시 칼럼에도 쓰고 이 책 처음에도 쓰고 이제 지겹네요 TTTT ㅋㅋㅋ
간단히 해설하겠습니다. 해설이 부족하면 맨 처음을 보면 됩니다 >_<

향단(香丹)아 @그넛줄을 밀어라
머언 바다로
배를 내어 밀듯이,
향단아

춘향이가 화자네요 ㅋㅋ
춘향이 풀따구 향단에게 그네를 밀라고 시키고 있죠
바다로 가고 싶은 걸까요?
바다로 가는 배처럼 밀어 달라하네용
향단이 안 미는지 향단을 한 번더 부르네요
빨리 밀라고 ㅋㅋ

향단아 - 청자설정, 자동으로 대화체, 반복
머언 - 시적 허용

이 다소곳이 흔들리는 수양버들나무와
베갯모에 놓이듯한 ㉠풀꽃더미로부터,
자잘한 나비 새끼 꾀꼬리들로부터
아주 내어 밀듯이, 향단아

수양버들, 풀꽃, 나비, 꾀꼬리가 풀도 보기 싫은 가봐요 ㅋㅋ
좋은 자연물들인데 왜 싫어할까요 TTT
상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당
춘향이는 지금 바다로 가고 싶어하는데
왜 가고 싶겠어요
바다가 좋거나 여기가 싫거나 둘 중에 하나이거나 둘 다 일텐데
지금 어떤 것들로부터 멀어지게 해달라고 한 걸 보니
여기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네요
그럼 멀어지고 싶은 것들은 춘향이가 머물고 있는 곳에 있는 것들이겠죠

산호(珊瑚)도 섬도 없는 저 하늘로
나를 밀어 올려 다오
채색(彩色)한 ☺구름같이 나를 밀어 올려 다오
이 울렁이는 가슴을 밀어 올려 다오!

산호도 섬도 없는 하늘로?
갑자기 하늘로 올려달라네요
근데 산호랑 섬은 바다에 있는데..
아!! 그니까 애초에 바다가 가고 싶은게 아니라
그냥 지금 머무른 곳에서 멀리 가고 싶은 건가봐요
그럼 하늘도 딱히 가고 싶은 곳이 아니겠조
구름은 이미 하늘에 가 있는 애니까
애처럼 나를 밀어라 라고 하는 거네요
울렁이는 가슴이라는 구절을 통해서
현재 화자가 뭔가 내적갈등이 심하다는 걸 알 수 있네요

다오! - 영탄
올려다오 - 반복

서(西)으로 가는 달 같이는
나는 아무래도 갈 수가 없다.

계속 밀어올려달라고 하다가 풀이 죽었습니다
안 된다는 걸 안 거겠조
달 처럼 멀리멀리 잘 가고싶은데 그네는 묶여있어서 못 갑니다ㅠㅠ
어조가 확 바뀐게 느껴지죠?

바람이 파도를 밀어 올리듯이
그렇게 나를 밀어 올려 다오
향단아.

바람은 미는 애 파도는 밀려 올라가는 애
따라서 바람은 향단 파도는 춘향이 되겠네요
암튼 미련이 남았는지 향단이한테 다시 올려보라고 하네요 ㅋㅋ

전체적으로 ~같이 ~ 처럼 같은 직유가 많이 쓰였네요 ㅎㅎ

(나) - 김지하, 「새」 -

이 시를 고2때 썸에 처음 봤던 기억이 있는데
무슨 소리하는지 멍때리면서 멘붕 당했던 게 기억나네요 ㅋㅋ
제목은 왜 새라고 했을까요?
새의 속성과 관련이 있거나 새에 대해 쓴 시겠죠 ㅎㅎ

저 청청한 하늘

저 흰 구름 저 눈부신 산맥

왜 날 울리나

날으는 새여

묶인 이 가슴

청청한 하늘과 눈부신 산맥, 날으는 새를 보면서 왜 질질 째까요?
자기는 묶여있는데 새는 자유롭게 날아다니니까 열폭하는 거죠 ㅋㅋ

청청한, 흰, 눈 부신 - 시각

날으는 새여 - 청자설정

묶인 이 가슴 - 형상화

밤새워 물어뜯어도

닿지 않는 밑바닥 마지막 살의 그리움이여

피만이 흐르네

더운 여름날의 썩은 피

묶여 있는데 여름에 덥기까지 하고
피가 흘러서 굉장히 짹짹할 거 같습니다..
상상만 해도 멘붕이 오네요 ㅠㅠ
밤새워 물어뜯어도 닿지 않는 밑바닥 마지막 살의 그리움이 될까요?
지금도 뭘소린진 잘 모르겠지만
화자는 묶여있고 날으는 새를 부러워하는 걸로 봐서
지금 뭔가를 그리워 한다면 그건 당연히 자유가 되겠죠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ㅋㅋ
근데 밤새워 물어뜯어도 닿지 않는대요
그럼 아무리 노력해도 풀려날 수가 없다는 뜻이겠죠

피 - 시각

더운 - 촉각

땅을 기는 육신이 너를 우려러
낮이면 낮 그여 한번은
울 줄 아는 이 서러운 눈도 아예
시뻘건 몸뚱어리 몸부림 함께
함께 답새라
아 끝없이 새하얀 사슬 소리여 새여
죽어 너 되는 날의 길고 아득함이어

하아... 여기서도 뭐라뭐라 하는데 갑갑하죠타 ㅋㅋ
땅을 기는 육신은 묶여있는 나를 말하는 거고
너는 내가 우려르는 거니까 자유로운 새를 말하는 거겠네요
'서러운 눈, 시뻘건 몸뚱어리 몸부림'
이 부분은 묶여 있으니까 답답하고 서럽고 아주 죽겠다느 거죠
끝없는 사슬소리는 계속 묶여있는 거고
새처럼 자유로우려면 다음 생에서나 가능할 정도로 아득하네요 ㅠㅠ

서러운 - 정서직접
답새라 - 영탄
새하얀 - 색채
소리여 - 청각, 영탄
새여, 아득함이어 - 영탄
얼마나 답답한지 영탄법을 쏟아내네요 ㅋㅋ

낮이 밝을수록 침침해가는
넋 속의 저 짧은
여위어가는 저 짧은 별발을 스쳐
떠나가는 새
칭칭한 하늘 끝
푸르른 저 산맥 너머 떠나가는 새
왜 날 울리나
덧없는 가없는 저 눈부신 구름
아아 묶인 이 가슴

낮이 밝을수록 침침해간다는 건 역설같지만,
자신의 처지를 나타내는 거죠
날은 밝아져도 자신은 계속 묶여있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칭칭한 하늘에 떠나가는 새를 보면서
또 열폭하면서 읊니다 ㅠㅠ
구름과 하늘은 덧없고 끝없이 넓고 자유로운데
묶여 있는 자신의 신세를 다시 한탄하면서 끝나네요

낮이 밝을수록 침침해가는 - 역설

저 짧은 - 반복

푸르른 - 색채

왜 날 울리나 - 설의

눈부신 - 시각

아아 - 영탄

(다) - 윤선도, 『만흥(漫興)』 -

암울한 시를 해설했더니 HP가 줄었는데 기분 좋은 시가 나왔습니다 ㅋㅋ

만흥은 넘칠만 흥흥으로 흥이 넘친다는 뜻이네요 ㅋㅋ

제목부터 아주 썩나!! ㅋㅋ

옛날 사람은 언제 썩날까요?

자연에서 놀고 먹을 때 썩납니다 ㅋㅋ

이 시는 보나마나 자연조아 짱! 이런 내용이겠네요 ㅋㅋ

산수간(山水間) 바위 아래 띠집을 짓노라 하니

그 모른 남들은 웃는다 한다마는

어리고 하암*의 뜻에는 내 분(分)인가 하노라

산이랑 물 사이에, 바위 아래 집을 지었습다 ㅋㅋ

그니까 산,물,바위 다 뭐예요? 자연

고전은 닥치고 일반화 ㅋㅋ

자연에 집을 짓는데

잘 모르는 남들이 비웃지만

이건 내 분수에 맞다 이려고 있네요 ㅋㅋ

자신을 어리석다고 했지만

속으론 너희들이 멍청한거 ㅋㅋ 이려고 있네요 ㅋㅋ

하노라 - 영탄

보리밥 풋나물을 알맞게 먹은 후에

바위 끝 물가에 슬카지 노니노라

그 남은 여남은 일이야 부렬* 줄이 있으랴

자연식을 맛나게 먹고

물가에서 그니까 자연에서 실컷 노네요 ㅋㅋ

자연에서 노는 것을 제외한 일은 부럽지가 않습다

있으랴 - 설의

잔 들고 혼자 앉아 먼 뒀을 바라보니
그리던 님이 오다 반가움이 이려하라
말씀도 웃음도 아녀도 못내 좋아 하노라

혼자 놀러왔으니 산이라도 친구를 해야겠쵸
술마시다가 미쳤는지 애인보다 산이 좋다면서
혼자 실실 쪼개기 시작합니다 ㅋㅋ

이려하라 - 설의

누고서 삼공(三公)*도곤 낫다 하더니 ㊸만승(萬乘)*이 이만하라
이제로 헤어든 소부 허유(巢父許由)*가 약뚫더라*
아마도 임천 한흥(林泉閑興)을 비길 곳이 없어라

도곤은 ~보다 라는 뜻인데 꼭 알아야돼요 ㅋㅋ
누가 삼정승보다 낫다고 하더니 뭐가?
뭐가 삼정승보다 나은 걸까요?
여태까지 무슨애기했어요?
자연이 좋다는 애기했잖아요
비문학이든 시든 큰 즐거움을 놓치지 마십서 ㅋㅋ
그니까 삼정승보다 자연이 낫다고 누가 그랬다.
만승이 이만하라. 그니까 만승보다 낫다는 말이죠? ㅋㅋ
만승이 뭐냐면 음.. 이걸 맹자에 나오는데 ㅋㅋ
옛날엔 탈것 그니까 수레(전차)의 숫자로 그 사람의 지위를 나타냈어요
전쟁 중에 수레를 천개 낼 수 있는 사람은 제후,
만개 낼 수 있는 사람은 천자라는 의미에서 만승 천승이란 말이 나왔어요 ㅎㅎ
암튼 삼정상이건 천자건 그것보다 자연이 조타 이런 내용 ㅋㅋ
소부허유는 밑에 나왔듯이 세상을 등지고 자연에서 살았던 사람인데
그사람이 약았대요
화자 입장에선 자연이 완전 재밋고 제일 좋은 거니까 소부 허유가 약은 게 되쵸 ㅋㅋ
임천한흥은 임천은 닥치고 일반화 자연 이고 ㅋㅋ
한은 모르는 사람이 많을거니까 넘어가고
흥은 흥이쵸 ㅋㅋ
그니까 자연의 즐거움이 비길 곳, 그니까 견줄 곳이 없다. 자연이 짱이다 이런 얘기네요
아오 지겹네 똑같은 얘기만 계속 ㅋㅋㅋ
잠설 좀 하자면 閑은 한가할 한 입니다. 閒 이것도 한가할 한 이구요 ㅋㅋ
恨은 슬픈한 이에요
고전에서 '한' 나오면 대부분 한가할 한 아니면 한한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한가할 한을 보면 문문 사이에 나무목이랑 달월이 있쵸?

옛날엔 언제 한가했을까요?
자연에서 놀 때 한가하다고 느꼈겠죠 ㅎㅎ
문을 열어보니 나무가 있고 달이 있다?
어디예요? 자연 안에 있네요. 아 한가해~ ㅋㅋ

이만하라 - 설의
약뚫더라, 하노라 - 영탄
뒤에도 계속 영탄, 설의 나오는 데 생략할게요 ㅋㅋ

**내 성이 게으르더니 하늘이 알으실사
인간 만사(人間萬事)를 한 일도 아니 맡겨
다만당 다투 이 없는 강산(江山)을 지키라 하시도다**

내가 성격이 게으른데 하늘이 어떻게 알고
인간만사(벼슬이겠죠)을 하나도 안 맡겨서
자연을 지키라하네요 ㅋㅋ
다툼이 없는 강산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인간만사는 다투 이가 있다는 걸 은연 중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강산이 좋다 한들 ㉠내 분(分)으로 누었느냐
임금 은혜를 이제 더욱 아노이다
아무리 값고자 하여도 하올 일이 없어라**

옛날 사람들의 고질병 나왔습니다
잘 나가다가 뜬금없이 임금타령.. 예효 ㅋㅋ
암튼 자연이 좋아도 내덕이 아니라 다 임금덕이다
값고자 해도 벼슬이 없어서 못 값넝 ㅠㅠ 이런 뜻 ㅋㅋ
그니까 자연이 좋다곤 하지만
나 벼슬 없으니까 다시 불러줘잉 이런 내용이네요 ㅋㅋ

㉠28번.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첫 연과 끝 연을 대응시켜 화자의 정서를 심화하고 있다.
-수미상관은 첫연 끝연이 완전 같은 거고 살짝만 다르면 선지1번같은 표현을 씁니다 ㅎㅎ
(가).(나) 둘다 첫연 끝연이 비슷하죠 맞네요. 너가 답 ㅋ
화자의 정서 심화는 판단부위 아니고.
- ② (가)와 (다)는 시간의 경과를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시간은 전혀 없음

③ (나)와 (다)는 객관적인 시각에서 대상을 묘사하고 있다.

- (나)는 묵혀있어서 열폭하는 내용이고 (다)는 자연 좋다고 찬양하는데 어디가 객관적 ㅋㅋ 둘다 감정폭발입니다 ㅋㅋ

④ (가), (나), (다)는 자연과 인간을 대립시켜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 (가)는 전혀 없고, (나)는 있다고 착각할 수도 있지만 아니고, (다)는 딱히 없네요 ㅋㅋ
(나)는 맞다고 볼 수 없는 게 자연과 인간의 대립이라고 하면
(나)처럼 개인이 새를 부러워 하는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연의 아름다움 / 인간의 세속성 이런식의 대립을 말하는 거라서 안되죠 ㅎㅎ

⑤ (가), (나), (다)는 단정적 어조로 화자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 단정적 어조는 -이다, -라 정도의 표현이 되는데요

5번선지는 단정적 어조가 있는지 봐야되고 그 부분이 화자의 의지를 나타내는 부분인지도 봐야합니다

(가)다오!를 통해 자신이 가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다고 볼 수 있구요

(나)는 ~여 라고 부르지만 하다가 끝나고

(다)는 ~라, ~라 라는 표현을 통해 자연이 좋다. 자연에서 살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답 1번.

◎29번. [B]를 <보기>와 같이 해석할 때, [B]의 화자가 [A]의 화자에게 할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의 내용과 같은 걸 찾으라는 문제네요 ㅋㅋ 속지마세요 ㅋㅋ

<보 기>

화자는 극한의 고통에서 벗어나 새처럼 자유롭게 되기를 희망하지만, 그것이 쉽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 역시 잘 알고 있다. 그러나 화자는 삶이 존엄하고, 생명이 남아 있는 한 고통에 맞서야 한다고 본다.

힘들어도 이겨내고 원하는 바를 쟁취해라!! 라는 거네요

원하는 바를 쟁취하라는 내용이 어딴가요?

‘화자는 ~하기를 희망하지만 쉽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안다. 하지만 고통에 맞서야한다.’

-> 문맥적으로 고통에 맞서야한다는 내용이 희망하는 바를 위해 고통을 이겨내라는 뜻.

① 꿈을 잃었다고 죽음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② 꿈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떨쳐 버리십시오.

③ 당신도 더 나은 세상에 대한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④ 아무리 어렵더라도 당신이 좇는 꿈을 끝까지 추구하십시오. - 여기 딱 있네요 ㅋㅋ

⑤ 당신이 꿈을 이루더라도 삶은 현재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답 4번.

㉔30. <보기>를 참고할 때, ㉔~㉔ 중에서 (다)의 ‘띠집’과 가장 유사한 기능을 하는 것은? [1점]

<보 기>

윤선도는 ‘띠집’을 짓고 나서 문집에 다음과 같이 적었다. “이 집이 나로 하여금 표연히 세상을 버리고 홀로 신선이 되어 날아가는 뜻을 지니게 하면서도, 끝내는 나로 하여금 부자(父子)와 군신(君臣)의 윤리를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

두가지 기능을 하는 것을 찾으시면 되겠네요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지닌 역설적인 것.

당연히 그네죠 ㅋㅋ 나를 앞으로 나가게 하면서도 묶여서 못 떠나게 하는것.

답 1번.

㉔31번. ㉔~㉔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 ㉔ ㉔은 어법에 어긋나지만 리듬감을 살리는 효과가 있다. - 시적허용 ㉔
- ㉔ ㉔은 역설적 표현으로 복잡한 심경을 드러내고 있다. - 역설 ㉔
- ㉔ ㉔은 반어적 표현을 통해 자조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반어, 자조 ㉔
- ㉔ ㉔은 과장된 표현을 통해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 과장, 만족 ㉔
- ㉔ ㉔은 설의적 표현으로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설의 ㉔

답 3번

㉔32번. (가)의 시적 상황을 <보기>의 ‘꿈’이라고 가정할 때, (가)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한 것은? [1점]

<보 기>

도련님이 눈물을 흘리며 훗날 기약을 당부하고 말을 채찍질하여 가는 모양은 광풍에 흩날리는 조각구름일레라. 이 때, 춘향이 하는 수 없어 자던 침방으로 들어가서, “향단아! 주렴 걷고 안석 밑에 베개 놓고 문 닫아라! 도련님을 생시는 만나 보기 망연하니 잠이나 들면 꿈에 만나 보지.”

-> 현실에서는 만나기 어려우니까 꿈에서 만나자! 라는 내용 ㅋㅋ

- ㉔ ㉔ 실패한 사랑의 상처를 노래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실패한 사랑? 어딴어 그계. 나중에 만나기로 했다잖아 ㅋㅋ
- ㉔ ㉔ 미천한 신분에 대한 한탄을 노래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신분 알 수 없음
- ㉔ ㉔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동경을 노래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개소리

④ 절대자에게 귀의하려는 의지를 노래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절대자 어딴니~

⑤ 재회를 소망하는 간절한 심정을 노래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보기와 완벽히 일치. 만나보지 = 재회.

답5번.

◎33번. (나)를 영상화한다고 할 때, 각 연을 영상으로 옮기기 위한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1연: 화자와 '새'의 거리감을 표현하기 위해 '하늘', '구름', '산'이 있는 원경(遠景)을 포착한다.

- 쓸데없는 선지네 ㅋㅋ 당연히 맞음. 화자와 새는 공간적으로도 심리적으로 거리감 있음.

② 2연: 화자의 암울한 처지를 강조하기 위해 1연에 비해 화면을 어둡게 한다.

- 암울하니까 어둡게 하면 괜찮겠지.

③ 3연: 화자가 처한 상황을 강조하기 위해 화자를 클로즈업하면서 효과음을 삽입한다.

- 뭐야 판단부위가 없어 ㅋㅋ 답이 될 수 없다 ㅋㅋ

④ 4연: 화자가 자신의 상황을 긍정하는 심리를 드러내기 위해 화면을 점차 밝게 한다.

- 자신의 상황을 긍정? ㅋㅋ 평가원이 미쳤습다 ㅋㅋ 너 답 ㅋ

⑤ 5연: 자유를 향한 화자의 염원을 강조하기 위해 '새'와 '구름'의 움직임을 포착한다.

- ㅇㅋ. 화자는 자유를 갈망함. 새 구름도 나옴 ㅋ

답 4번.

◎34번. <보기>는 (다)의 창작 배경인 금쇄동을 답사하고 쓴 글이다. <보기>와 관련하여 (다)를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금쇄동 일대는 해남 윤씨 고택(古宅)에서 멀리 떨어진 산속에 있어 아무도 그 위치를 모르다가 최근에서야 흔적이 발견된 곳이다. 윤선도가 여기 은거하기 시작한 때는 반대파의 탄핵을 받아 유배되었다가 돌아온 직후였다. 그는 가문의 일마저 아들에게 맡기고 산속에서 십여 년간 혼자 지냈다. 살 집은 물론 정자와 정원까지 조성해 놓고 날마다 거닐며 놀았다고 한다.

① '산수간'은 관념적인 표현으로만 생각했는데, 실제 공간일 수도 있겠군. - ○○

② '바위 끝 물가'는 정원의 바위와 연못을 가리킬 수도 있겠군. - ○○

③ '그 남은 여남은 일'은 금쇄동에서 산수를 즐기는 일을 가리킬 수 있겠군.

- 여남은 일은 분명 자연에서 즐기는 것을 제외한 일이라고 했을텐데!! ㅋㅋ

보기에서 찾아보면 벼슬과 가문의 일이 되겠습.

④ '먼 피'는 윤선도가 유배 체험에서 입은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었겠군.

- 피보다 좋다고 쪼개니까 맞지 ㅋㅋ

⑤ ‘다툼 이 없는 강산’은 정쟁이 벌어지는 현실과 대비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군.
- ○○. 본문에서 설명함 ㄱ

답 3번.

[28~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푸른 하늘에 닿을 듯이
세월에 불타고 우뚝 남아 서서
차라리 봄도 꽃피진 말아라

낮은 거미집 휘두르고
끝없는 꿈길에 혼자 설레이는
마음은 아예 뉘우침 아니라

검은 그림자 쓸쓸하면
마침내 호수(湖水) 속 깊이 거꾸러져
차마 바람도 흔들진 못해라

- 이육사, 『교목(喬木)』 -

(나)

푸른 산이 흰 구름을 지니고 살 듯
내 머리 위에는 항상 푸른 하늘이 있다

하늘을 향하고 산림처럼 두 팔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숭고한 일이나

두 다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짧은 산맥으로 삼고
부절히 움직인다는 둥근 지구를 밟았거니……

푸른 산처럼 든든하게 지구를 디디고 사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이나

뼈에 저리도록 '생활'은 슬퍼도 좋다
저문 들길에 서서 푸른 별을 바라보자……

푸른 별을 바라보는 것은 하늘 아래 사는 거룩한 나의
일과이거니……

- 신석정, 『들길에 서서』 -

(다)

북한산(北漢山)이
다시 그 높이를 회복하려면
다음 겨울까지는 기다려야만 한다.

밤사이 눈이 내린,
그것도 백운대(白雲臺)나 인수봉(仁壽峰) 같은
높은 봉우리만이 열은 화장을 하듯
가볍게 눈을 쓰고

윈 산은 차가운 수목으로 젖어 있는,
어느 겨울날 이른 아침까지는 기다려야만 한다.

신록이나 단풍,
골짜기를 피어오르는 안개로는,
눈이라도 윈 산을 뒤덮는 적설(積雪)로는 드러나지
않는,

심지어는 장밋빛 햇살이 와 닿기만 해도 변질하는,
그 고고(孤高)한 높이를 회복하려면

백운대와 인수봉만이 가볍게 눈을 쓰는
어느 겨울날 이른 아침까지는
기다려야만 한다.

- 김종길, 『고고(孤高)』 -

28.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에는 현재 처한 상황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 있다.
- ② (가)와 (다)에는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해소된 조화로운 상태가 구현되어 있다.
- ③ (나)와 (다)에는 일상생활의 소중함에 대한 자각이 나타나 있다.
- ④ (가), (나), (다)에는 자연의 섭리에 대한 깨달음이 바탕에 깔려 있다.
- ⑤ (가), (나), (다)에는 화자가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삶의 자세가 담겨 있다.

29. (가)와 (나)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표현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비유와 상징을 통해 시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② 어조의 변화를 통해 시적 긴장을 높이고 있다.
- ③ 동일한 색채어를 반복하여 정서를 고조시키고 있다.
- ④ 공감각적 표현으로 이미지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 ⑤ 화자의 시선이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이동하고 있다.

30. <보기>는 (가)에 대한 심화 학습을 위하여 수집한 자료이다. 이를 참고하여 토의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백과사전】

이육사: 시인. 1904년 경상북도 안동 출생. 항일 독립 투쟁으로 20여 차례의 투옥 끝에 베이징 감옥에서 옥사함.
· 작품 경향: 저항 의식, 실향 의식과 비애, 초인 의지와 조국 광복에 대한 열망 등을 주제로 삼고 있음. 정제된 형식미와 안정된 운율감을 보임.
· 『교목』: 1940년 『인문평론』 7월호에 발표.

【국어사전】

교목: 줄기가 곧고 굵으며 높게 자라는 큰 나무.

【인터넷 자료】

· 『맹자』에 따르면, ‘교목’은 오랜 세월 덕을 닦아 임금을 도(道)로써 보필하여 나라를 떠받치는 신하를 의미한다.
· 시인은 빈궁과 투옥과 유랑의 사십 평생에 거의 하루도 평온한 날이 없었다. 문학청년은 아니었으나 삼십 고개를 넘어 시를 쓰기 시작했고, 혁명적 열정과 의욕을 시에 의탁해 꿈도 그려 보고 불평도 터뜨렸던 것이다. (『육사 시집』 발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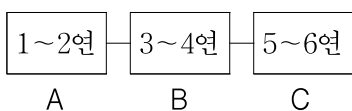
- ① 이 시의 제목은 나라를 위한 시인의 절개와 기상을 표상한 것이다.
② 이 시의 행 배열과 연 구성에서도 이육사 시의 형식적 특성을 찾을 수 있다.
③ ‘낮은 거미집’은 시인의 고난에 찬 삶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④ ‘끝없는 꿈길’은 시인의 혁명적 열정과 의욕을 함축하고 있다.
⑤ ‘바람’은 이국을 떠돌던 시인의 실향 의식과 저항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31. <보기>는 (나)와 (다)를 자료로 한 수업의 일부이다. 학생들의 의견 가운데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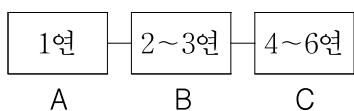
<보 기>

선생님: (나)와 (다)의 기본적인 짜임새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어요.

(나)



(다)



이제 두 시를 자세히 읽고, 시상의 전개에 대해 의견을 말해 볼까요?

- ① (나)에서 A의 두 연은 ‘하늘’, B의 두 연은 ‘지구’, C의 두 연은 ‘푸른 별’이라는 시어를 통해 각각 결합되고 있어요.
② (나)는 A에서 ‘하늘로 팔을 드러내는’ 숭고함을, B에서 ‘땅을 디디고 선’ 기쁨을 그리는데, 이것들이 C의 ‘저문 들길에 서서 푸른 별을 보는’ 거룩함으로 연결되고 있어요.
③ (나)는 (다)와 달리 A의 내용이 B에서 응축되고, B의 내용이 C에서 더 응축되고 있어요. A에서 C로 갈수록 묘사의 범위가 좁아지면서 의미가 심화되는 것이 특징이에요.
④ (다)의 A, B, C는 모두 ‘기다려야만 한다’는 말로 끝나고, ‘겨울’이라는 말도 공통적으로 나타나지요. 반복이 이 시의 특징이에요.
⑤ (다)는 (나)와 달리 A는 한 연, B는 두 연, C는 세 연으로 늘어나요. 그러면서 B와 C는 A의 시상을 상세화하고 있어요.

32. (다)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① ‘열은 화장’은 산봉우리에 눈이 살짝 쌓인 모습을 나타낸 것이야. 산의 미묘한 변화에 주목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
② ‘차가운 수목’은 겨울 산의 모습을 그림에 비유한 거야. 대상의 속성이 드러날 수 있는 정황을 묘사하고 있어.
③ ‘신록’, ‘단풍’, ‘안개’는 겨울이 아닐 때의 산의 모습을 나타내. 이들과의 대비를 통해 겨울 산의 의미를 부각하고 있어.
④ ‘흰 산을 뒤덮는 적설’은 가볍게 눈에 덮여 있는 상태와 호응하지. 세속적인 것에서 벗어나 홀로 존재하는 산봉우리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어.
⑤ ‘장밋빛 햇살’은 가볍게 눈 덮인 산봉우리의 속성을 ‘변질’시키지. 그럼으로써 화자가 형상화한 산봉우리의 의미를 생각해 보게 해.

07수능 28~32번

(가) - 이육사, 「고목(喬木)」 -

이육사형은 일제시대 시인으로 항일운동의 일환으로 시를 쓰신 분이
실제 삶과 시가 일치합니다

그리고 시의 어투가 상당히 특이한 편인데

이육사시의 특징을 모르면 해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시도 마찬가지로 -라. 로 끝나는데

언뜻보면 말이 안되는 것 같지만

의지를 강력하게 표현한 말투라고 생각하면 될 듯 하네요 ㅎㅎ

고목은 높고 굵은 나무라는 뜻입니다

보나마나 자신이 가진 나라에 대한 절개와 기상을 비유한 거겠죠 ㅎㅎ

**푸른 하늘에 달을 듯이
세월에 불타고 우뚝 남아 서서
차라리 봄도 꽃피진 말아라**

하늘에 달을 듯이 우뚝 서서

봄에도 꽃피리 말라!!

봄에 꽃피지 말라는 게 이해가 잘 안되지만

문맥적으로 살펴보면

우뚝 서서 = 세월에 불타고 = 봄에 꽃피지 않고

다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니까 봄에 꽃피는 건 절개가 없고

세월에 불타지도 않는 편안한 생활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여기서 세월은 나를 불타게 하는 대상이므로

화자를 힘들게 하는 시간, 즉 일제시대라고 볼 수 있겠네요 ㅎㅎ

푸른 - 색채

말아라 - 영탄

**낮은 거미집 휘두르고
끝없는 꿈길에 혼자 설레이는
마음은 아예 뉘우침 아니라**

낮은 거미집은 초라하고 가난한

자신의 모습을 형상화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꿈길은 내가 원하는 것이겠고

초라하고, 끝없고, 혼자 이지만 그길을 걷는 걸

뉘우치지 않겠다는 거네요 멋져라 ㅋㅋ

아니라 - 영탄

검은 그림자 쓸쓸하면
마침내 호수(湖水) 속 깊이 거꾸러져
차마 바람도 흔들진 못해라

검은 그림자는 자신의 그림자겠죠
2연에서 혼자, 3연에서는 쓸쓸 이라는 어휘를 통해서
자신이 걷는 길이 홀로 걷는 외로운 길이라는 걸
드러내고 있습니다
나무가 거꾸러졌네요
그럼 나무 입장에서 어떻게 된거죠? 죽는 거죠
검은 그림자 쓸쓸하다는 것은 죽음의 그림자를 뜻하고
죽으면 바람도 흔들진 못한다는 말은
죽음을 각오한 의지는 바람도 흔들지 못한다라는 뜻이겠네요 ㅎㅎ
바람은 그대로 읽기를 하면 나를 흔들던 대상입니다.

검은 - 색채
못해라 - 영탄

(나) - 신석정, 「들길에 서서」 -
들길에 있으니까 자연물들이 나오겠죠 ㅎㅎ

푸른 산이 흰 구름을 지니고 살 듯
내 머리 위에는 항상 푸른 하늘이 있다

푸른산 위에 흰구름
내 머리 위에 푸른 하늘
산과 나를 대응시키고 있네요 ㅎㅎ
자연과 자신을 동일시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푸른 - 동일 색채
흰 - 색채

하늘을 향하고 산림처럼 두 팔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숭고한 일이나

하늘을 향해 산처럼 팔을 뻗는게 숭고하다고 생각하네요
사소한 것에 감사하는 사람인가봐요 ㅎㅎ

일이나 - 설의

**두 다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젊은 산맥으로 삼고
부절히 움직인다는 둥근 지구를 밟았거니……**

자신을 자꾸 산으로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ㅋㅋ

푸른 산처럼 든든하게 지구를 디디고 사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이나

음.. 시 구조가 방금 전과 같네요 ㅎㅎ
이번엔 지구 디디고 사는 것이 기쁘대요 ㅋㅋ
행복전도사 돋습니다 ㅋㅋ

**뼈에 저리도록 '생활'은 슬퍼도 좋다
저문 들길에 서서 푸른 별을 바라보자……**

생활은 슬퍼도 좋다는 것은
상황은 부정적이지만 인식과 태도는 긍정적인 것을 나타냅니다
슬픈 생활에 대한 반응은 푸른 별을 바라보는 것이네요
그럼 푸른 별이라는 것은 슬픈 생활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 희망 정도가 되겠네요

푸른 별을 바라보는 것은 하늘 아래 사는 거룩한 나의 일과이거니……

슬픈 생활 속에서도 희망을 느끼고 감사할 줄 아는 행복전도사의 얘기였습니다 ㅋㅋ

(다) - 김종길, 「고고(孤高)」 -

고고하다는 건 초연하여 홀로 고상하다라는 뜻입니다 ㅎㅎ
고고한 무언가가 나오겠죠 ㅎㅎ

**북한산(北漢山)이
다시 그 높이를 회복하려면
다음 겨울까지는 기다려야만 한다.**

북한산의 높이가 고고에 해당하겠네요 ㅎㅎ
근데 그 높이를 회복하려면 겨울까지 기다려야한대요
겨울은 어떤 시간인가요?
그대로 읽기를 통해보면
북한산이 높이를 회복하는 시간(고고한 시간)
기다려야만 하는 시간.
이렇게 두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ㅎㅎ

**밤사이 눈이 내린,
그것도 백운대(白雲臺)나 인수봉(仁壽峰) 같은
높은 봉우리만이 열은 화장을 하듯
가볍게 눈을 쓰고**

높은 봉우리만 살짝 눈이 덮힌 상태를 묘사하고 있네요

눈 - 계절감

**원 산은 차가운 수묵으로 젖어 있는,
어느 겨울날 이른 아침까지는 기다려야만 한다.**

원 산은 왼쪽 산일까요?

그렇리가 없죠 ㅋㅋ 온산이겠죠

그럼 온 산이 차가운 수묵으로 젖어있는 상태는 될까요?

눈이 전체를 덮은거!

라고 오해하기 쉽지만

문맥적으로보면 2연에서 높은 봉우리만 살짝 눈이 덮힌 상태!! 라고 나와있죠

차가운 수묵 = 높은 봉우리만 눈 덮힌 상태

둘다 기다려야하는, 고고한 높이를 회복하는 때의 모습입니다 ㅎㅎ

차가운 수묵이라는 건 수묵화에 빗대서 표현한 거겠죠

근데 겨울이니까 차갑다고 한거구요 ㅎㅎ

차가운 - 촉각

기다려야만 한다 - 반복

**신록이나 단풍,
골짜기를 피어오르는 안개로는,
눈이라도 원 산을 뒤덮는 적설(積雪)로는 드러나지 않는,**

신록은 여름이고, 단풍은 가을, 골짜기 피어오르는 안개는 봄,

눈이 오는 겨울 에서도 온 산을 다 뒤덮는 적설은 안 된다고 나와있네요

앞에서 말했듯이 높은 봉우리만 눈 덮힌 상태만 오케이라는 거죠 ㅋㅋ

신록, 단풍, 골짜기~안개, 적설 - 계절감

**심지어는 장밋빛 햇살이 와 달기만 해도 변질하는,
그 고고(孤高)한 높이를 회복하려면**

그 고고한 높이는 장밋빛 햇살이 살짝만 닿아도 변질하는
그런 순결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햇살의 역할은 뭐죠?
고고를 변질시키는 것이네요 ㅎㅎ

장밋빛 - 색채
햇살- 시각

**백운대와 인수봉만이 가볍게 눈을 쓰는
어느 겨울날 이른 아침까지는
기다려야만 한다.**

고고한 높이는 이때까지 기다려야한다 라고
강력히 계속해서 주장하는 시였습다 ㅋㅋ

☺28번.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가)와 (나)에는 현재 처한 상황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 있다.
-(가)에서 현재 상황을 나타내는 것은 불타는 세월, 낡은 거미집, 혼자 정도가 있는데
긍정적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죠? ㅎㅎ

(나)는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ㅎㅎ

②(가)와 (다)에는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해소된 조화로운 상태가 구현되어 있다.

-(가)는 당연히 아니구요. (다)는 딱히 선지에 부합하는 내용이 아니네요.

③(나)와 (다)에는 일상생활의 소중함에 대한 자각이 나타나 있다.

-(나)는 숭고하고, 기쁘고 거룩하다고 했으니 맞습니다 ㅎㅎ

(다)는 일상생활과는 관련이 없네요 ㅋㅋ

④(가), (나), (다)에는 자연의 섭리에 대한 깨달음이 바탕에 깔려 있다.

- 자연의 섭리는 이때 처음 나온 표현인데요

단어 그대로 맞는지 틀렸는지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연의 섭리가 뭘까. 출제자가 어떤 걸 보고 자연의 섭리라는 표현을 썼을까.

이걸 먼저 생각하고 판단해야합니다.

수능에서 새로운 선지가 나왔다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게 우선입니다.

섭리라는 건 자연계의 이치, 법칙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응당 그래야하는 것, 자연의 본래 모습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럼 (가)는 봄에 꽃피지 말라했으니 아니구요. 자연과 별 상관도 없고 ㅋㅋ

(나)는 푸른 산이 흰 구름을 지니고 살고, 지구 위엔 산맥이 디디고 있고

이런 것들로 보아 자연에 대한 섭리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는 고고한 높이는 아무때나 오지 않는다.

봄여름가을엔 고고한 높이가 나오지 않고(각 계절에 해당하는 자연현상이 있고)
겨울 중에서도 적설이 있고 높은 봉우리에만 눈이 쌓이는 때가 있다는 것을 표현했으니
자연의 섭리가 지대로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ㅋㅋ

⑤(가), (나), (다)에는 화자가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삶의 자세가 담겨 있다.

-(가) 우뚝 남아서고, 꿈길을 혼자 걷고,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ㅇㅋ

(나) 숭고한일 기쁜일 거룩한 일에 대한 언급이 있으니 이것도 ㅇㅋ

(다) 고고한 높이 혹은 그 때를 기다리는 자세 ㅇㅋ

답 5번.

㉔29번. (가)와 (나)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표현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① 비유와 상징을 통해 시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 비유와 상징은 딱히 구분할 필요없고 둘 중 하나만 찾아도 맞다고 하면 됩니다 ㅎㅎ

(가)는 비유 상징 범벅이네요 ㅋㅋ 전체적인 시도 특정상황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고 교목에 자신을 비유하고 시어들도 상징입니다.

(나) ~하듯 ㅇㅋ

② 어조의 변화를 통해 시적 긴장을 높이고 있다.

-없음 ㅋ

③ 동일한 색채어를 반복하여 정서를 고조시키고 있다.

-없음 ㅋ

④ 공감각적 표현으로 이미지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없음 ㅋ

⑤ 화자의 시선이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이동하고 있다.

-(가)는 시선의 이동이 없고

(나)는 시선의 이동이 하늘, 지구, 푸른별인데

딱히 가까운데서 먼 곳으로 이동한다고 볼 수 없겠네요

답1번.

㉔30번. <보기>는 (가)에 대한 심화 학습을 위하여 수집한 자료이다. 이를 참고하여 토의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백과사전】

이육사: 시인. 1904년 경상북도 안동 출생. 항일 독립 투쟁으로 20여 차례의 투옥 끝에 베이징 감옥에서 옥사함.

· 작품 경향: 저항 의식, 실향 의식과 비애, 초인 의지와 조국 광복에 대한 열망 등을 주제로 삼고 있음. 정제된 형식미와 안정된 운율감을 보임.

· 『교목』: 1940년 『인문평론』 7월호에 발표.

【국어사전】

교목: 줄기가 곧고 굵으며 높게 자라는 큰 나무.

【인터넷 자료】

· 『맹자』에 따르면, ‘교목’은 오랜 세월 덕을 닦아 임금을 도(道)로써 보필하여 나라를 떠받치는 신하를 의미한다.

· 시인은 빈궁과 투옥과 유랑의 사십 평생에 거의 하루도 평온한 날이 없었다. 문학청년은 아니었으나 삼십 고개를 넘어 시를 쓰기 시작했고, 혁명적 열정과 의욕을 시에 의탁해 꿈도 그려 보고 불평도 터뜨렸던 것이다.(『육사 시집』 발문)

①이 시의 제목은 나라를 위한 시인의 절개와 기상을 표상한 것이다.

- 작품경향에 나와있죠 ㅇㅋ

②이 시의 행 배열과 연 구성에서도 이육사 시의 형식적 특성을 찾을 수 있다.

- 3음보, 한 연당 3행씩 ㅇㅋ

③‘낮은 거미집’은 시인의 고난에 찬 삶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 ㅇㅋ

④‘끝없는 꿈길’은 시인의 혁명적 열정과 의욕을 함축하고 있다.

- 인터넷자료에 나와있음 ㅇㅋ

⑤‘바람’은 이국을 떠돌던 시인의 실향 의식과 저항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 바람은 아까 화자를 흔들던 대상이니까 보기를 참고해보면 일제정도가 될 듯.

보기에 나와있지만 시 내용에 맞지 않으므로 fail ㅋ

답5번

◎31번. <보기>는 (나)와 (다)를 자료로 한 수업의 일부이다. 학생들의 의견 가운데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나)에서 A의 두 연은 ‘하늘’, B의 두 연은 ‘지구’, C의 두 연은 ‘푸른 별’이라는 시어를 통해 각각 결합되고 있어요.

- 결합되고 있다는 말을 고민할 필요없습니당 ㅋㅋ 그냥 있다 정도로 해석하면 됨 ㅋㅋ

ABC에 하늘, 지구, 푸른 별이라는 말이 있다 ㅇㅋ

②(나)는 A에서 ‘하늘로 팔을 드러내는’ 숭고함을, B에서 ‘땅을 디디고 선’ 기쁨을 그리는데, 이것들이 C의 ‘저문 들길에 서서 푸른 별을 보는’ 거룩함으로 연결되고 있어요.

- 연결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ㅋ ㅇㅋ

③(나)는 (다)와 달리 A의 내용이 B에서 응축되고, B의 내용이 C에서 더 응축되고 있어요. A에서 C로 갈수록 묘사의 범위가 좁아지면서 의미가 심화되는 것이 특징이에요.

- 묘사의 범위가 좁아졌나? 하늘, 지구, 별인데.. 땡

④(다)의 A, B, C는 모두 ‘기다려야만 한다’는 말로 끝나고, ‘겨울’이라는 말도 공통적으로 나타나지요. 반복이 이 시의 특징이에요.

- ㅇㅋ

⑤(다)는 (나)와 달리 A는 한 연, B는 두 연, C는 세 연으로 늘어나요. 그러면서 B와 C는 A의 시상을 상세화하고 있어요.

-ㅇㅋ. 눈뜨고 보면 알 수 있음 ㅋㅋ

답3번.

㉔32번. (다)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①'열은 화장'은 산봉우리에 눈이 살짝 쌓인 모습을 나타낸 것이야. 산의 미묘한 변화에 주목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

- 아까 열은 화장 부분 찾아보면 ㅇㅋ. 미묘한 변화인지 아닌지는 판단 안해도 됨 ㅋ

②'차가운 수목'은 겨울 산의 모습을 그림에 비유한 거야. 대상의 속성이 드러날 수 있는 정황을 묘사하고 있어. - ㅇㅇ...

③'신록', '단풍', '안개'는 겨울이 아닐 때의 산의 모습을 나타내. 이들과의 대비를 통해 겨울 산의 의미를 부각하고 있어. -ㅇㅇ

④'원 산을 뒤덮는 적설'은 가볍게 눈에 덮여 있는 상태와 호응하지. 세속적인 것에서 벗어나 홀로 존재하는 산봉우리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어.

-원 산을 뒤덮는게 어떻게 가볍게 눈에 덮힌 거야 ㅋㅋ 안됨 ㅋㅋ

⑤'장밋빛 햇살'은 가볍게 눈 덮인 산봉우리의 속성을 '변질'시키지. 그럼으로써 화자가 형상화한 산봉우리의 의미를 생각해 보게 해.

-햇살은 산봉우리의 속성을 변질 ㅇㅋ

답4번.